

1. 역사 다시 쓰기

마태복음의 예수이야기

- "예수"라는 말. 공관복음비교: 마태(152); 마가(82); 누가(88) Cf. 요한(244); 행(69); 롬(36); 고전/후(43); 갈(17); 엡(20); 빌(22); 골(7); 살전(16); 살후(13); 딤후(41);몬(6).. 계(14)
=> ** 바울의 7 대 서신(롬, 고전/후, 갈, 빌, 살전, 몬=> 140 번)
- 예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내 이야기/우리들 이야기

대안공동체 (천국)

- 왜 "천국"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Kingdom of heaven[s])일까? 성경에 32 번=> 모두 마태복음에만 등장. Kingdom of heaven(s) = Kingdom of God =The Jesus Movement.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란 마태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마 7:21). 마가복음보다는 보다 좁은 길(마 7:13-14), 구체화된 상태
- 정체성과 행동윤리
 1. 정체성 (Identity) : 누구인가? 예수는 공동체의 Founder
 2. 행동윤리 (Life-Formation) : 공동체 윤리
 - 마태복음 공동체 생활윤리 =>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Review: 삼각형 (사건=>기록=>의도/가치)
 - 5 대 설교문=> 마태복음의 구조 (5-7 장; 10 장; 13 장; 18 장; 24-25 장)
 - ⇒ 산상수훈(5-7 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7:"28)
 - ⇒ 12 제자 파송명령(10 장):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11:1)
 - ⇒ 천국의 비밀--비유로 가르침(13 장):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0:53)
 - ⇒ 교회 질서와 치리(18 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19:1)
 - ⇒ 마지막 때에 관하여(24-25 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26:1)

A. 유대인 정체성—새로 읽는 유대 역사

- 아브라함과 다윗. 역사와 역사관=> 선택의 문제 (vs. 모세와 신명기 사관)
 - 14 대요??? 아래 별지 참조 (다윗=> 777 =4+6+4)
 - 계산해 보면, 1) 아브라함-다윗(약 800 년); 다윗-바벨론 포로(약 400 년); 바벨론 포로-그리스도 (약 600 년); 2) 요람-웃시야 사이의 3 왕이 빠짐; 3)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3 대.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아브라함/다윗과 맺은 축복(창 12:3; 삼상 7 장)의 결말/완성이 예수라는 선언.
- 소외된 자들의 주인의식
 - 여인들 이야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라야). 왜?
 - ⇒ 실제 이야기라면, 다른 신학/역사관/기록에서는 삭제=>의도적, 부끄러우니까;
 - ⇒ 가상의 이야기라면,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쓸까? => 다른 저자/신학/역사관 반영. 기록된 후에는 진실 여부가 더 이상 주된 논쟁/관심거리가 아니다. 이 기록/신학이 주는 의미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 Warren Carter, *Matthew and the Margins: A Sociopolitical and Religious Reading* (New York: Orbis, 2000)
 - 초점은 예수 이야기(출생)=> 기존의 신학/가치관으로 볼 때, 대표적/자랑스런 일이 못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와 같은 의미=> I AM IN!)
 - 차별화 선언.
 - ⇒ 공회. "their synagogue"(4:23; 9:35; 10:17; 12:9; 13:54), "your synagogue"(23:34) => "ruler of the synagogue(막 5:22, 35-38) vs. "ruler"(마 9:18, 23)
 - ⇒ 바리새인 (23:16, 17, 19, 24, 26) ; 랍비=> 부정적 의미 (cf. 막 11:21 vs. 마 21:20; 막 8:5 vs. 마 17:4). 유다만 홀로 랍비라 호칭(마 26:21-25, cf. 막 14:19)=>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마 23:8).

B. "하느님의 눈"으로 본/(보고싶은) 역사

- 예수의 출생---Without a father=> patriarchal system/dominant ideology/"합법적" 지배체제와 차별화
-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 16 (1:22; 2:15, 17, 23; [3:15]; 4:14; [5:17]; 8:17; 12:17, 13:35, [48]; 21:4; [23:32]; 26:54, 56; 27:9; 마가 2 번 ([1:15]; 14:49) => 전통에 서서, 그러나 새롭게!

 생각해 보기

1. 공관복음 중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일 것이다. 그 이유는? (힌트. 생활윤리)
2. 마태복음 신학과 대형교회 신학이 만난다면?

마 1: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아브라함-다윗 (2-6a 절)	다윗-바벨론 (6b-11 절)	바벨론 이거-예수 그리스도(12-16 절)
1. 아브라함	1. 다윗 (우리아의 아내/밧세바)	1. 여고냐 (바벨론으로 이거)
2. 이삭	2. 솔로몬	2. 스알디엘
3. 야곱	3. 르호보암	3. 스룹바벨
4. 유다 (다말)	4. 아비야	4. 아비훗
5. 베레스	5. 아사	5. 엘리아김
6. 헤스론	6. 여호사밧	6. 아소르
7. 람	7. 요람	7. 사독
8. 아미나답	8. 웃시아	8. 아킴
9. 나손	9. 요담	9. 엘리웃
10. 살몬 (라합)	10. 아하스	10. 엘리아살
11. 보아스 (룻)	11. 히스기야	11. 맛단
12. 오벧	12. 므낫세	12. 야곱
13. 이새	13. 아몬	13. 요셉
14. 다윗	14. 요시아	14.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15. 여고냐 (바벨론으로 이거)	

- Q. 1. 다윗과 여고냐를 두 번씩 읽으면, 둘째 그룹이 15 대; 여고냐가 3 번째 그룹으로 가면 각각 14 대. 왜 다윗만 두 번 읽는가?
 2. 다윗을 한 번만 치면 (그리고 여고냐도 한 번), 여고냐의 위치에 따라, 줄째 혹은 세째 그룹이 13 대)